



코스피	2064.52	코스닥	683.09
	(-11.05)		(-3.24)
금리(미국 3년)	1.80	환율(원/달러)	1123.00
	(-0.01)		(+6.60) (14일)



**[해설]**  
R의 공포  
한국경제 패닉  
기업가 정신 깨워라  
03

### 靑 경제행보 총력 환경 리스크 복병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직면했다. 바로 '환경'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피상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까지 내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정부 정책의 누수 현상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 '2부제-경유차 제한' 국민 책임만 잔뜩, 정부는 뒷짐

# 空約된 '미세먼지 30% 감축'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환경부가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수도권 및 10개 시·도로 확대 발령한 게 이를 방증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때 발령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혹은 '나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171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지난 해 3월25일의 99 $\mu\text{g}/\text{m}^3$ 이었다.



14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로 갇혀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10개 시·도 확대 발령**  
**경유차 제한 차량 2부제 등 국민에 저감 초점 맞춰져**  
**靑 대책 질타 청원글 빗발**

경유 차량의 운행이 밤 9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2부제'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차량2부제는 홀수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미세먼지,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정원사적: 2019-01-14] [정원사적: 2019-02-13] [정원사적: 1]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미세먼지. 지금 당장은 아무이상없겠지만 알겠은 존재. 어닝카로 살기좋은나라 국민이행복한 나라 같습니다. 유입은 백년전부터 그 심각성을 알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작 드려요. 이 심각성을 빨리, 대책은 의 했을것 같습니다. <정원사적: 2019-01-14> [정원사적: 2019-02-13] [정원사적: 35]

**17년 4월 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공약**  
[정원사적: 2019-01-14] [정원사적: 2019-02-13] [정원사적: 35]

[17년 4월 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공약] 미세먼지 정권입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공약이 ... 달고 있어서 안달았습니다. 온 방송, 뉴스, 라디오, 신문, 말까지, 블로그 온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정권에... <정원사적: 2019-01-14> [정원사적: 2019-02-13] [정원사적: 1]

**미세먼지 나쁠때 단축업무라도! 남편들 살려주세요.**  
[정원사적: 2019-01-14] [정원사적: 2019-02-13] [정원사적: 1]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상태입니다. 재난문자도 왔고 저감조치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은 결석하면 됩니다. 장면에 갇혀서 가 있지만 바람에서 일하는 남편은 직장입니다. 마스크 쓰면 아직도 눈치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입니다. 무지한 멍청한 사람들이 연쓰는거... <정원사적: 2019-01-14> [정원사적: 2019-02-13] [정원사적: 1]

미세먼지 문제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청와대 홈페이지

차량2부제는 법적 권고사항인 점에서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량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저감 초점이 '국민'에게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안일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또 다른 청원인은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안을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해달라. 미세먼지 없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불

만을 터뜨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청원인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지주 출범식에서 출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금융지주 4년 만에 부활 적극적 M&A로 '1등 금융' 탈환

우리금융지주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4년 11월 민영화를 위해 해체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다시 지주사로 부활하면서 5대 금융지주 시대가 열렸다. 우리금융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리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을 위해 비은행 부문 M&A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저축은행은 직접 인수하고, 증권 등 M&A 규모가 큰 곳은 다른 곳과 같이 공동 투자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는 것은 향후 2~3년 내로 보고 있다. 올해 공격적인 M&A에 성공하더라도 이익이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 그는 "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다른 금융그룹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와 내년에 적극적인 M&A로 1등 금융그룹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자산만 따지면 현재 은행이 지주 이익의 99% 수준인데 7대 3 또는 6대 4의 비중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고, 그룹내외에서 선발된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추진

**◆우리금융지주, 4년 만에 부활... M&A 본격화**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우리FI 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 자산운용 등 6개사를 자회사로 출범한다. 우리카드와 우리저축은행을 상반기 내로 지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손 회장은 "카드와 저축은행 지주로 편입할 경우 우려하는 오버행(대량 대기매물)이슈를 없애기 위해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저축은행 100% 현금매입, 카드는 50% 가량 현금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주편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딩뱅크 경쟁에 본격 뛰어드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완전 민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을 매각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의 지분 18.4%를 보유하고 있다.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27.2%다. <8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

## "미세먼지 악화"... 탈원전 반대서명 23만명

한전 2억t 온실가스 배출 석탄화력 발전량 41%로 ↑ 원전 비중 줄고 석탄 증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 2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반대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회·학계·학생·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거리로 나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깊어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해 11월 8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 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

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직결된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3%로 증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석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여론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

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탄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우승준 기자

# 먼지가 된 韓·中 공동대응... 서울시, 5년 허송세월?

2002년  $76\mu\text{g}/\text{m}^3$  → 작년  $40\mu\text{g}/\text{m}^3$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줄고있다”  
시민들 “중국에 항의해야” 목소리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4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에서 이들 연속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지난 4년간 베이징시와 추진해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력이 성과없는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베이징시와 2014년부터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지난해 서울시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내 초미세먼지(PM2.5)는 대기질 오염 측정을 시작한 지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17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현정 기자

2002년  $40\mu\text{g}/\text{m}^3$ 에서 2017년  $25\mu\text{g}/\text{m}^3$ , 지난해에는  $23\mu\text{g}/\text{m}^3$ 까지 줄었다. 미세먼지(PM10)는 2002년  $76\mu\text{g}/\text{m}^3$ 에서 2017년  $44\mu\text{g}/\text{m}^3$ 로, 2018년에는  $40\mu\text{g}/\text{m}^3$ 로 줄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해온 국내·외 대기질 개선 사업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

내고 있다. 직장인 임모(29) 씨는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거다”면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미세먼지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중국에나 항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원지인 중국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는 2014년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공동합

의문’을 발표하면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양 도시 간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중국에 ▲CNG 버스 보급 ▲공공차량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저녹스버너 보급 ▲도로분진 흡입차량 시험 운행 등의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2015년에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력 전담조직인 ‘환경팀’을 서울-베이징 통합 위원회 내에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어 2016년부터 몽골에 나무를 심어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는 ‘미래를 가꾸는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몽골 아르갈란트 숲 내 60ha 규모의 땅에 총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몽골 지역 내 나무의 평균 생존율이 50% 내외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자동화 관수시스템을 도입해 생존율 71% 수준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몽골에 100ha에 나무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2017년에는 중국·일본·몽골의 주요 도시와 대기질 문제 해법을 찾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대기 오염 방지 포럼 협력 7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7회 등을 실시했다.

그동안 중국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이 논의에만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또 양 도시에 고정 연락관을 두고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는 ‘미세먼지 핫라인’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베이징시 등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기질 개선과 같은 환경 문제는 시민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연희뉴스

## “한국서 살기 어려워... 이민 가야하나”

### 미세먼지가 바꾼 생활상

서울시, 공공주차장 434곳 폐쇄  
“마스크 해도 목·눈 아파... 도로 피난”



14일 오전 시청사 지하 4층 주차장은 제법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폐쇄하고 출입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김현정 기자

14일 서울시와 수도권에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오전 시청역 일대로 출근하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가 없는 이들은 ‘쿨쿨쿨쿨’ 마른기침을 해대며 목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난 김모(68) 씨는 “일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먼 소재로 만들어진 검은색 마스크를 내렸다. 그에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며 “어디서 파냐”고 되물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직장인 정모(52) 씨가 “약국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면서 “마스크 포장지에 ‘K’라고 쓰여 있는 거”라며 본인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가리켰다.

시청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40) 씨는 “오늘 마스크가 엄청 많이 팔리진 않았다”며 “오전에만 6개 정도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많이 팔렸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사다가 몇 박스씩 쟁여놓고 쓴다”며 “약국에서 많이 사가는 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지하 4층 주차장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폐쇄하고 출입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날 시청 지하 주차장 관리실에는 3명의 단속요원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오늘 차 가지고 나오셨냐”고 물으니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왔다”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청 직원뿐

만 아니라 우리도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지금 여기 있는 차들은 관용차, 언론사 취재 차량, 택배 차,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차뿐”이라고 덧붙였다.

청계3가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윤모(35) 씨는 “마스크를 써도 목이랑 눈이 아프다”며 “친인척은 이번엔 오키나와로 피난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쌍둥이가 있는 윤 씨는 “애들이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다”며 “한국에 살기 점점 어려워진다. 캐나다로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 중이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경기도 서북부 일대에서는 야외 훈련과 숙영이 강행됐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제보건기구의  $50\mu\text{g}/\text{m}^3$ 과  $25\mu\text{g}/\text{m}^3$ 을 크게 넘긴  $206\mu\text{g}/\text{m}^3$ 과  $173\mu\text{g}/\text{m}^3$ 였다.

육군의 초미세먼지 예보기준에 따르면 ‘매우 나쁨’ 농도 이상의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야외훈련을 실내교육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일선의 한 지휘관은 “사실상 조정은 힘들다. 상급지휘관들이 부대훈련 주기 등을 검토하겠지만, 강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날씨에 공기청정기를 갖춘 실내에 계신 상급지휘관들이 미세먼지와 함께 잠을 청하는 부하들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삼한사미... ‘클린가전’ 불티

(三寒四微: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

### G마켓·옥션·위메프

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 매출 급증  
청정+온풍 ‘4계절 기능’ 제품 출시

예전에는 겨울 날씨를 이야기할 때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말 그대로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라는 뜻이다. 한국 겨울날씨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한사미(三寒四微)’가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대표 용어로 자리잡았다. 3일간 춥고, 춥지않은 4일동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다는 의미다. 삼한사미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1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는 280만명에 달한다.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배나 높다고 경고한 만큼,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를 ‘클린가전’으로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 이제는 필수가전! 때를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용품보다 ‘클린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의 최근 한달(2018년 12월 14일~2019년 1월 13일) 기준, 전년 동기대비 판매 성장률을



삼성전자 스타일러(왼쪽)와제로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각사

살펴보면, 가스난로와 온수매트가 각각 31%, 42% 성장한 반면, 의류관리기와 공기청정기는 각각 109%, 53% 성장했다.

옥션의 클린가전 판매 성장률(2018년 12월 14일~2019년 1월 13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공기청정기는 35%,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는 69%나 판매량이 늘었다. 스타일러는 냄새 입자를 없애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유해세균까지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안감케어 옷걸이로 안감면지를 털어주고, 미세먼지 필터로 털어낸 먼지까지 제거해 주어 옷은 물론 제품 내부까지 더욱 청정하게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세균제거가 가능

한 살균소독기(손소독기)는 105%, 미세먼지를 방지해주는 황사 마스크는 89% 성장률을 보였다.

위메프에 따르면, 3년 전(2015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는 437배(43641%) 판매량이 증가했고, 공기청정기는 6배(511%) 이상 늘었다.

◆기능은 더하고, 무게와 부피는 줄이고  
공기청정기가 필수가전으로 탈바꿈하면서 기존에 없던 기능이 더해진 공기청정기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롯데닷컴 가전셀의 박지원 MD는 “건조한 겨울에 가습효과도 누릴 수 있게 습식으로 공기를 정화해주는 에어워셔류부터 최근엔 공기청정 기능에 온풍 기능까지 결합된 신상품이 출시되는 등 다른 기능과 합쳐진 복합제품이 눈에 띄고 있다”며 “봄·가을 뿐 아니라 사시사철 사용하기 좋도록 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앞으로 더 많이 출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이 나온 ‘다이스너 퓨어 핫앤콜 링크’ 공기청정기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만 겨울엔 온풍으로 난방까지 책임져주는 똑똑한 제품이다. 대용량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1가구 1공기청정기 시대에서 각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두는 1방 1공기청정기 시대로 바뀌면서 작고 가벼워지는 슬림화 경향도 보여진다.

/신선 기자 tree6834@

## 野 “文, 책임부인 中에 반박 못해”

>> 1번 ‘미세먼지 30% 감축...’서 계속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

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

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는 중국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 낸드 본뜬 사옥, '혁신 대명사' 실리콘밸리 넘어 글로벌 침범

## 삼성전자 DS 미주 총괄사옥 가보니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산호세 국제공항에 내려 차로 15분쯤 달리자 낮고 평범한 건물들 사이로 높고 웅장한 하얀색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외관은 3개의 층으로 나뉜 것처럼 보였고 촘촘하게 나 있는 창문이 특징이다. 한 눈에 봐도 특이한 이 건물의 정체는 반도체의 단면 구조를 형상화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미주총괄법인(DSA)이다.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오종훈 상무는 건물의 형상에 대해 "총 10층짜리 건물을 3개 층으로 나뉘었으며 3개는 '삼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반도체의 단면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건물의 모습과 거의 같다"며 "말하자면 이 건물은 엄청나게 큰 반도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은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 같은 존재로 알아서 움직이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16년 준공된 신사옥으로 반도체 부문 미주총괄과 삼성전략혁신센터(SSIC) 직원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산호세 랜드마크, '삼성 미주총괄 사옥'

산호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는 도시로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메카'이자, 새로운 혁신 기업이 가장 먼저 탄생하는 스타트업의 요람인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산호세에는 삼성 반도체를 포함해 인텔, 시스코시스템스, 이베이,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3단으로 적층한 모양의 삼성전자 미주총괄 사옥은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업체를 상징하는 건물로 통한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몸통에 파란색 'SAMSUNG' 로고를 박은 하얀색 로봇이 눈에 띈다. 수십여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탑재한 보안 로봇이다. 총 3대의 보안 로봇이 사옥 주변과 주차장을 순회하며 24시간 감시를 통해 수상한 인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미주총괄 사옥은 직원들의 창의성 발휘를 위한 건강한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건물의 3개 층마다 야외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8층에서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테니스, 농구, 배구 코트와 함께 피트니스센터와 음악감상실도 운영한다. 피트니스센터에선 로봇 팔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 IT 기업의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다.

미주 총괄 사옥의 또 다른 특징은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이다. 연간 최대 800메가와트(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3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 의미 담아 3개 층으로 나뉜  
우수 인재 확보 가능한 혁신 허브  
1992년 세계 최초 64MD램 개발  
2010년 연 매출 10억 달러 달성도**

**AI·5G·자율주행 등 미래먹거리 개발  
스타트업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오종훈 상무는 "옥상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10%를 충당하고 있다"며 "매년 미국 환경부가 발표하는 '100대 친환경 기업'에서 7위에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상위권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IT 회사가 자리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돼 방문한 구내식당은 호텔의 뷔페식당을 방불케 했다. 한식, 일식, 멕시칸, 아메리칸, 이탈리아, 인디안 등 14개의 구역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주문 즉시 조리해줘 직원들은 매일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종훈 상무는 "실리콘밸리에서 한식을 매일 제공하는 구내식당은 여기뿐"이라며 인프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 64MD램 개발, 반도체 R&D 전초기지

삼성전자가 1983년 판매개발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음 미국에 진출한 DS부문 미주총괄은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의 한 축을 맡고 있다.

1986년 첫 작품으로 1MB D램을 개발했으며, 1992년 세계 최초의 64MD램 개발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연간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반도체 개발과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 1000여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미주총괄은 현재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전장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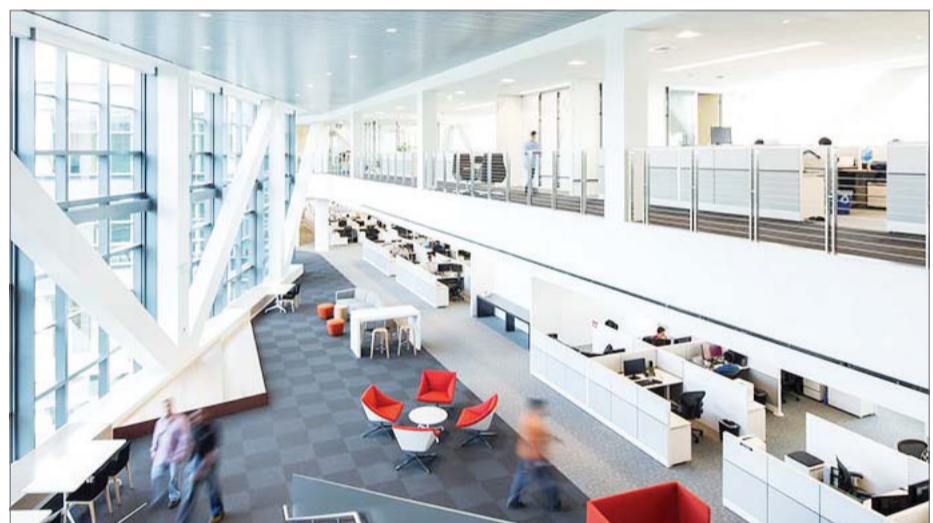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DS부문 미주총괄(DSA) 오종훈 상무가 DSA의 조직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내부 모습.

/삼성전자

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에 특화된 키블류 SSD, 인공지능 머신러닝용 스마트 SSD, 고속 네트워크용 SSD와 스토리지를 결합한 NVMeoF SSD 등 새로운 솔루션으로 고객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주총괄이 지난 10월 개최한 '삼성 테크 데이 2018'에는 글로벌 IT업체, 애널리스트, 파워 블로거 등 500여명이 참가해 최신 IT·반도체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에 미주총괄 외에도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와 삼성전략혁신센터(SSIC) 등을 운영하며 차세대 반도체 부품과 AI 등 혁신 기술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유망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3년 전략적 개방형 혁신을 위해 설립된 삼성전략혁신센터는 미국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 글로벌 혁신 허브를 운영하며 전사차원의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 중이다.

AI, 5G, 자동차, 디

지털 헬스 케어 등에서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한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CEO 서밋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석학과 투자 전문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략혁신센터는 벤처 투자 전용 펀드인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를 통해 매년 수 백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분석하고 투자 중이다. 2013년부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약 40여개 회사에 투자했으며, 향후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분야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해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리서치 아메리카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분야에서 미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IoT, 스마트 머신 등을 차세대 핵심 기술로 선정해 연구역량을 집중하며 삼성전자의 신규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해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에게 전달해왔다.

한편, 2018년 1월에 개소한 실리콘밸리 AI 연구센터는 실리콘 밸리에서 배출되는 인공지능 관련 우수인력·기업들과 기술적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의 AI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산호세(미국)·구사윤 기자 yun2514@metro.co.kr



▲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전경.

# VR로 색상·외관·성능 실험 철통 보안시설 ‘디자인 거점’

## 기아차 미국 심장 ‘디자인 센터’를 가보니

지난 9일(현지시간) 기아자동차 미국 시장 공략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KMA)과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과 미국 디자인 센터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도시 어바인(Irvine)에 자리를 잡고 있다. 어바인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인들의 최신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 이어서 GM, 포드, 벤츠, 도요타 등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시장의 디자인 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 ◆ 기아차 미국 시장 공략의 첨병 ‘KMA’ …현재와 미래를 듣다

현장에서 만난 윤승규 기아차 북미권 역본부장 및 판매본부장(전무)은 “미국 제이디피와 ‘2018 신차품질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 SUV ‘텔루라이드’와 박스카의 최강자 신형 ‘쏘울’, ‘쏘울 EV’와 ‘니로 EV’ 등 친환경차를 투입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 이겠다”고 강조했다.

1992년 설립된 KMA는 25년 동안 기아차의 미국 시장 공략 기지로 활약해왔다. 1995년 100개에 불과했던 딜러수도 어느덧 800개 가까이(770개, 2018년 6월 기준) 늘어났고 임직원수도 511명 규모로 커졌다.

KMA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커다란 통유리로 되어 개방감이 돋보이는 건물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길을 따라 로비로 들어오니 옵티마(한국명 K5), 포르테(한국명 K3), 쏘렌토 등 미국시장에 진출해 활약중인 기아차의 대표 차종들이 전시돼 있었다.

로비에서 간단한 보안 절차를 마친 후



### 기아차 미국시장 공략 기지 KMA 위기돌파 위해 SUV 라인업 강화 대형 플래그십 ‘텔루라이드’ 출시 북미 최적화 세련된 이미지 담아

들어선 1층 강당에서 기아차 관계자를 만나 미국시장에서 기아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기아차는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곤 미국 시장에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02년 23만7345대에서 2016년 64만 7598대로 2.7배가 넘는 판매량 증진을 이뤄냈다. 그러나 2017년에는 58만9668대를 판매하는데 그쳤으며 2018년도 58만 9673대로 판매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올해 미국에서의 대내외적 시장 환경 또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기아차는 위기 돌파를 위해 올해 대형 플래그십 SUV 텔루라이드를 출시하는 등 SUV 라인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기아자동차 미국 디자인센터 전경. 전시장 앞에서는 위장막을 씌워놓은 텔루라이드와 쏘울 EV, 신형 쏘울(왼쪽부터)이 전시되어 있다 /기아차

### ◆ ‘북미 트렌드 분석’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는 현지 트렌드를 분석해 북미 시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드는 곳이다.

2005년 7월 준공해 2008년 6월 완공한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는 일반적으로 1년에 7~8개가 넘는 차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설립된 이래로 쏘울, 텔루라이드 콘셉트, 니로 등 북미 시장에 선보인 다수의 차량을 탄생시킨 곳이다.

이 때문일까. 디자인 센터는 신차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기아차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삼엄해 사진 촬영은 일체 불가능했고 취재진도 제한된 공간만 방문할 수 있었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마치고 처음 향한 곳은 ‘디지털 영상 품질장(VR Room)’으로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신차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실시간으

로 차량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각종 계기장치를 시험 작동해 볼 수도 있어 실제로 모형을 만들지 않고도 차량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었다.

영상 품질장에서 쏘울과 텔루라이드의 외장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커트 카할 시니어 디자인 매니저를 만나 올해 주요 공략 차종을 화면에 띄운 채 각 차종의 디자인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002년 기아차에 입사해 디자인 업무를 맡아온 커트 카할 시니어 디자인 매니저는 신형 쏘울에 대해 “기존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 한층 강인하고 하이테크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에 대한 디자인을 소개했다. 텔루라이드는 북미 시장에 최적화된 정통 SUV로서 플래그십 모델다운 강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담아낸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어바인(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팰리세이드, 美 소비자 기대 치솟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

## 미국 ‘클레프 앨런’ 현대차 딜러점 가보니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라구나 니구엘시에 위치한 ‘앨런 현대’ 현대차 딜러사에서 사장인 클리프 앨런씨가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올해 기대됩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니구엘 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딜러점을 운영하고 있는 클레프 앨런(Cliff Allen)씨는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계약대수가 2만7000대를 돌파하며 국내 SUV시장의 거대 포식자로 급성장한 팰리세이드는 미국서도 출시를 기다

### 출시 한달만에 2만7000대 계약 한층 강화된 ‘SUV 라인업’ 구축 미국 RV시장에 효과적 대응 전망

리는 차량임을 직감했다.

이 곳의 오퍼 딜러인 클리프 앨런씨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어 3대째 딜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딜러 명가 출신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3대에 걸쳐 딜러점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현대차 딜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다.

앨런 씨는 “아버지에게 이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딜러점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현대차에 매력을 느꼈다”며 “이 곳과 현대차 디자인 센터,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였다”고 답했다.

앨런 씨가 본격적으로 딜러

점을 맡기 시작한 2006년도는 현대차가 ‘10년 10만 마일 보증’ 등 파격적인 마케팅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던 시기였다. 그는 “2017년과 비교해 판매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현대차 딜러점 운영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는 현대차의 품질 향상과 다양한 혁신적인 마케팅 덕분이다. ‘가성비 좋은 차’의 이미지를 ‘품질 좋은 차’로 성장한 것이다.

앨런 씨는 “현대차는 경쟁사들에 비해 확실한 품질 보증, 뛰어난 스타일링 등 더 나은 가

치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다”며 “특정 나이, 성별, 국적을 떠나 전세계의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팰리세이드 출시로 한층 강화된 SUV 라인업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 RV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라구나 니구엘(미국)=양성운 기자



현대차 팰리세이드.

# 화학을 넘어... 신소재·배터리·필름 '먹거리' 발굴

## SKC

스페셜티 소재 사업 지속 확장

## LG화학

중 배터리공장 증설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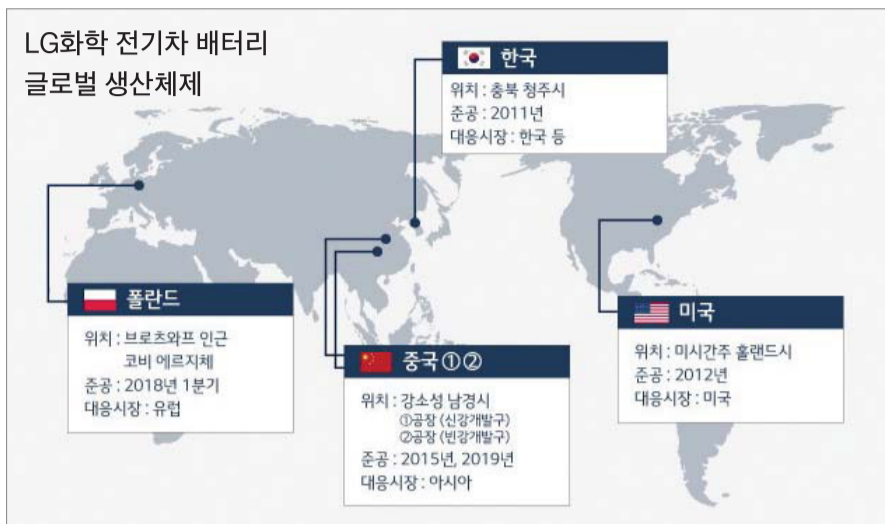
## SK이노베이션

폴더블폰 핵심 투명PI 필름 개발

화학업계의 신사업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흔들리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제 성장 등으로 이제는 '순수 화학'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C,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화학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신소재 시장에 적극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SKC는 우리화인켐 광학소재 제조 부문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케미칼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광학



용 케미칼 소재는 광학용 폴리우레탄(PU)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원료다.

앞서 SKC는 기존 PU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거듭, 지난해 8월 광학용 PU 소재 상업화에 성공했다. 여기에 고부가 케미칼 XDI를 내재화하면서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XDI는 고굴절도노머 '싸이올'과 함께

광학용 PU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다. 지금까지는 기술 격차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서만 생산해왔다.

스마트폰 등 IT 기기 사용이 늘고 고품화 시대가 되면서 광학용 소재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PU 소재는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편광 렌즈, 다초점 렌즈, 광변색 렌즈 등 기능성 렌즈나 시력

보정용 렌즈로 쓰이며 시장 규모는 6000억 원 정도다.

SKC 관계자는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고부가 P U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제4, 제5의 고부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특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시장인 '차량 경량화'에 집중,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난징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1조2000억원의 증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화학은 한국 오창과 폴란드, 미국 홀랜드, 중국 난징 등 글로벌 4개 생산거점에서 2020년까지 110GWh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10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배터리·소재 등 비정유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국내 에너지·화학·배터리업계

최초로 CES에 참가해 전기차 배터리, Li BS(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FCW(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등을 선보였다.

배터리사업의 경우 현재 헝가리, 중국, 미국 등에서 생산 설비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세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서산 공장을 포함해 총 3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올해 폴더블폰 출시가 예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핵심 소재 '투명PI'도 고부가 소재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개발한 투명PI 필름인 FCW를 이번 CES에서 공개, 최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준비에 한창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동수단을 뛰어넘은 자동차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는 SK이노베이션이 미래 주력 사업으로 하는 배터리·LiBS·FCW"라며 "배터리·소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포스코 '취업교육' 취업준비생에 호평

포스코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교육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취업준비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가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과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등의 수업을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했다. 포스코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수료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교육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취업준비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가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과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등의 수업을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했다. 포스코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수료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 LNG선 호조... 조선업계 올 수주목표 상향

현대중, 117억 달러... 전년비 15% ↑  
삼성중, 수주 78억 달러 매출 7조  
대우조선해양 목표는 내달 공식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 '빅2'가 올해 수주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수주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올해 목표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117억달러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목표액인 102억달러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각각 43억5000만달러, 35억3000만달러로 수주목표를 전년보다 상향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계열사의 올해 수주목표는 1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목표액이었던 162억달러보다 18%가량 높아졌다. 지난해 조선부문 목표인 132억달러를 초과한 137억달러를 수주한 실적도 수주목표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대우조선해양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수주목표를 78억달러로 정했다. 매출목표는 7조1000억원이다. 2021년 매출 목표는 9조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중공업 2019년 예상 매출액 7조1000억원의 지난해 10월 공정 공시를 통해 밝힌 2018년 매출액(전망) 5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수주 목표액 역시 지난해 실적 63억달러 보다 15억달러 늘어났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수주는 LNG(액화천연가스)선과 컨테이너선 중심의 시

황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시장은 예정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BP 매드독 FPU, ENI 코랄 FLNG 등 해양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며 2017년 이후 수주한 상선 물량도 건조 착수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다음 달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은 7조~8조원, 수주목표는 80억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목표액 73억달러 중 68억1000만달러를 수주해 5년 만에 90%가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선부문과 특수선 부문 실적이 뛰어났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LNG선과 VLCC(초대형원유운반선)에 집중했던 것처럼 올해도 같은 분야에 집중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기아차 '쏘울 부스터' 사전계약 돌입

터보 1914만·EV 4600만원부터

기아자동차가 14일 '쏘울 부스터'의 주요 사양 및 가격대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나선다.

쏘울 부스터는 2008년 첫 선을 보인 쏘울의 3세대 모델로 동급 최고 출력 204마력의 파워풀한 주행성능, 완전히 새로워진 하이테크 디자인, 최첨단 멀티미디어 사양 등 강력한 상품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쏘울 부스터는 가솔린 1.6터보, EV 등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가솔린 1.6터보 모델은 동급 최고 출력 204마력(ps), 최대 토크 27.0kg·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춘 1.6터보 엔진과 기어비 상향조정 등으로 응답성을 개선한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를 탑재해 최강의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쏘울 부스터에 탑재된 터보 엔진에는 응답성을 개선한 터보 차저를 적용해 고속뿐만 아니라 저속 구간에서도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가격은 1914만~

2376만원이다.

쏘울 부스터 EV는 기아차의 최첨단 R&D 기술력이 집약된 전기차로, 1회 충전 시 총 386km를 주행할 수 있어 기아차 전기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이를 위해 기존 대비 80% 이상 향상된 150kW의 출력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부하 토크 영역에서의 효율을 증대시킨 모터를 장착했다.

이 외에도 EV 모델에만 적용된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SCC w/S&G) 등으로 더욱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다. 가격은 4600만~490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SDI, 美 모터쇼서 배터리 혁신 대거 선보

2019 티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 제시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인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을 제시, 기술 차별화에 나섰다.

삼성SDI는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 BO)센터에서 열리는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NAIAS 2019)'에서 혁신 소재를 적용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셀을 대거 전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SDI의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 전시 콘셉트는 'Charged for Auto 2.0'으로 '자동차 2.0 시대를 위한 충전 완료'라는 의미다. Auto 2.0은 자율주행, 전동화, 초연결성, 차량 공유화로 대변되는 시대로 2017년 골드만삭스가 첫 도입한 용



14일(현지시각) 삼성SDI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해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SDI

어다. 전시는 ▲EV(완전 전기차) ▲PHEV ▲LVS(내연기관을 위한 효율성 제고)의 3가지 스토리로 구성했다.

삼성SDI는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셀과 37Ah(암페어아워)에서 78Ah가

지 EV, PHEV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소재 및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자동차 업계가 고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에너지밀도 증가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과 전기차 가격 인하다. 삼성SDI가 이번에 소개한 신제품들은 에너지 용량을 크게 증가시킨 혁신적인 셀이다. 셀을 채택할 경우 차량당 셀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메이커들의 원가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을 소개하고 한층 진화된 LVS(Low Voltage System) 팩 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도 전시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AI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기에  
준비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속도, 안정성, 보안까지  
마침내 완성된 SK텔레콤의 5GX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 손태승, “비은행 M&A 적극 나서… 비중 7:3으로”

〈우리금융 회장〉

〈은행·비은행〉

## 우리금융 회장 일문일답

“리스크관리에 역점 ‘자산 성장’ 설 비상체제 운영… IT인력 보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14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2020~2021년에는 1등 금융그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출범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 비은행 인수·합병(M&A)을 본격적으로 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조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손 회장과 일문일답.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은행 쪽은 강하데 비은행 쪽이 약하다. 비은행 쪽을 적극적으로 M&A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한다. 처음 1년은 내부등급법으로 전환 문제가 있어 작은 규모로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 정도를 보고 있다. 규모 있는 회사는 직접 인수가 어려우면 다른 곳과 같이 참여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엔 자본비율이 회복되면 우리가 50%



노성태(왼쪽부터) 우리금융 사외이사,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인수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보고 있는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다.”

—최근 대출자산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과거 부실이 많아서 최근 몇 년간 자산 성장보다는 건전성 위주의 정책을 폈다. 현재 건전성은 연체율 0.3%대, 고정이하여신비율(NPL) 0.5% 수준으로 국내 은행 중 최고인 것 같다. 우량등급 비율(BBB 이상)이 85%로 제일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일부 자산 성장도 신경 쓰겠다. 리스크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자산 성장을 하고, 비은행 M&A로 성장성 면에서도 상당 부분 따라잡을 것이다.”

—작년에 전산 사고가 있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있다.

“15년 만에 빅뱅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렇게 방대한 작업인지 몰랐다. 거래 대부분이 인터넷·스마트뱅킹이라 새로운 시스템을 깔다 보니 에러(오류)가 났다. 작년 2월 오픈하려는 걸 미비점이 많아 5월 오픈했는데, 추석 때 에러가 났다. 그 뒤로 철저히 보완했다. 올해 2월 설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할 것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IT 인력과 디지털 인력을 뽑았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도 댔다.”

—예금보험공사 지분 매각 방향은.

“금융위원장이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다고 했다. 원래 계획은 지주사 출범 후 매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나 관

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매각 안을 만들 것으로 본다. 우리는 매각 객체이기에 공자위, 금융위에서 잘 결정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과점주주 체제다. 운영해 보니 훌륭한 제도 같다. 과점주주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행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 잘 견제하고 있다. 이런 모델이 바람직한 것 같다.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주와 이사회에서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 순이익 목표가 있다.

“공시 위반이라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 최대한 비은행 M&A를 많이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갈 것이다. 올해 초는 당장 이익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7월에 M&A를 하면 올해 100% 반영이 안 되고 2~3년 지나면서 반영될 것이다. 작년 기준 자산 390조원 정도가 될 것 같다. 비은행 쪽 보험, 증권사가 없어 다른 곳과 차이가 난다. 보험은 자본확충 문제가 있어 당분간 인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증권은 올해 인수를 못 하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0년, 2021년 가면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1등 그룹이 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1면 ‘우리금융지주 부활…’서 계속

## 최종구 금융위원장 “완전한 민영화 추진”

최 위원장은 “잔여지분 매각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기조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완전 민영화된 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주사 제출함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향후 공적자금 회수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편입을 통해 지회사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우수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듯한 금융지주사로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략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 롯데손보

### 2019 임직원 전략워크숍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주제 아래 ▲취급액 확대 ▲손해를 개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결의를 다졌다.

롯데손보는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와 전산 고도화,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이사는 “2019년은 안정적인 질적 성장을 위해 소통을 통해 대내외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며 “내실경영 실천과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고도화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8 하반기 경영성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됐다. /김희주 기자 hj89@

# 대리점 수수료 10% 절감… 3년간 年 39% ‘폭풍성장’

## IPO 간담회

### 노랑풍선

21·22일 청약 실시, 30일 상장 예정 자체개발 ‘코러스’ 시스템 통합관리

국내 1위 직판 여행사 ‘노랑풍선’이 이달 말 코스닥시장 상장에 재도전한다.

노랑풍선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5, 16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1만5500원~1만9000원)를 확정하고 21, 22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상장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노랑풍선은 자체 개발한 여행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 여행사다. 직접 판매는 대리점 수수료(9~10%)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주요 여행사는 대리점망을 통해 판매하는 간접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다.

김인중 노랑풍선 대표이사는 “오프라



김인중 노랑풍선 대표이사가 14일 여의도 기자 간담회에서 노랑풍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인 영업망을 따라잡기 힘들겠지만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직판을 강화한 덕분에 최근 3년간 연 평균 3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노랑풍선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73억6900만원으로 이미 전년도 매출액(838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연이은 자연재해로 여행

업황이 둔화되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0억2800만원으로 전년 영업이익(125억48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랑풍선은 고도화된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와 서비스 표준화를 이뤘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정보시스템인 ‘코러스(CHORUS)’로 내부 ERP(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대리점, 렌더사, 제휴사 등의 외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말 24시간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 최근 증가하는 자유여행객을 흡수하기 위해 자체 OTA(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의 항공 예약 시스템에 호텔 예약 시스템을 더한 자체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향후 2020년까지 단계적 확장을 통해 현지투어, 교통, 액티비티를 아우르는 토탈 예약 서비스 OTA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자유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 비용 등으로 패키지로 다시 돌아오는 수

요미 있다”면서 “향후 현지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더한 다이나믹 패키지가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노랑풍선은 지난해 10월 일본 후쿠오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법인과 직접 거래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본 내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동남아, 유럽 등 해외 법인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노랑풍선은 2017년 9월 한차례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당시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김인중 대표이사는 “당시 빠르게(상장을) 진행하다 보니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이 부분을 더 강화해 다시 시장에 도전했다”고 강조했다.

노랑풍선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 가운데 80억원가량을 차입금 상황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36억원 정도를 항공·호텔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합한 IT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손임자·배한님 기자 sonumji301@

## NH농협은행, ‘소통강화’ 고객패널 모집

NH농협은행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9기 ‘NH-고객패널’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2명 내외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7일까지다.

제9기 NH-고객패널은 농협은행의 상품·서비스·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

시, 금융신상품 아이디어 제안, 인터뷰와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로 활동비 지원과 농협은행 이용 시 우수고객 혜택 등이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2013년 NH-고객패널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객패널의 제안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저축은행중앙회장 유력 후보자 2인 인터뷰

“저축銀 목소리 일원화” vs “업계-금융당국 가교役”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 후보자가 16일 결정된다. 이번 후보 공모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7명이 등록해 그 어느때보다도 최종 후보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개연성이 높은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2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성목 후보 '서민금융 베테랑' 강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1순위 과제 '예보료 인하'
서민금융, 싱크탱크로 각종 규제에 적극적 대처
전문성·추진력으로 진격

높아 업계에서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의 원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연좌제’ 식 규제는 부담하다”며 “높은 예보료로 대출원가를 높여놓으면 대출금리 또한 높아지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 등을 설득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금융연구원을 저축은행중앙회의 싱크탱크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별 저축은행 업계가 각각의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싱크탱크로 삼아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조원장은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중앙회장의 임기는 절대 길지 않다”며 “역대 중앙회장들과 면담을 해보니 1년은 업무 파악, 그 다음 1년은 교섭 추진, 마지막 1년은 퇴임 준비에 쓴다고 한다. 그보다는 당장의 현안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사가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축은행 분야에 몸담았던 전문성과 각종 규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중앙회장의 자리

30년간 금융 공직에 몸 담아
민간기업 사장 등 경험 풍부
저축銀, 대손충당금 적립 등
과한 규제 완화 되도록 노력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식 후보 '정통 금융관료' 강조
“30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가교역할을 하겠다.”

행정고시 26회로 정통 금융관료 출신 후보자인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강조했다. 박 전 사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보험제도과장 및 국제기구과장 등을 지낸 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 몸담았을 때 저축은행 담당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며 “공직에서 30년 가량을 있었기에 그 경험이 크고,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할 경험도 있어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서 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전 사장은 높은 예보료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과도한 규제로 봤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사의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그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던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홍명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거미줄 규제에 성장 한계... 넥슨 매물로

‘중저가폰 전성시대’에 드리운 그림자

‘넥슨 매각사태 원인과 대안’ 토론회
규제 개선 안되면 ‘제2 넥슨’ 초래
중소 지원 등 정부 정책 손질해야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환영하겠나. 게임의 위기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의 회사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국 게임 산업의 현주소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넥슨 매각설이 단순히 한 개인의 판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혁신 동력이 떨어진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한국 게임 산업의 현실과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접목한 의견이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김정주 회장의 판단 배경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 한계를 꼽았다.

현재 하드코어 전략수행게임(RPG) 시장으로 넘어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각 ▲매각 실패와 현상유지 등 네 가지 넥슨 매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액 50% 이상은 게임이고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나라인데 게임 업계의 자괴감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특히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먼저 도입한 분야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게임 산업에 썩어진 규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을 틀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넥슨 매각과 관련된 사태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의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넥슨 매각 사태를 보고 제 2, 3의 넥슨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고성능·가성비에 소비자 ‘긍정적’
중 저가부품 공세에 시장 ‘부정적’
시장 정체시 韓 부품사 피해 초래

중저가폰이 무거워졌다. 플래그십에 앞서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가격도 저렴해지는 추세다. 자급제가 확산하는 데다가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눈치다. 중저가폰 특성상 이익이 적은 편인 데다 ‘치킨게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기술 혁신을 등한시하면서 업계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저가폰 전성시대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중국에 갤럭시 A8S를 출시했다. 중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의 최신 해외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갤럭시 A7 2018년형을 출시했다.

LG전자도 지난 11일 국내에 보급형 제품 Q9을 출시했다. 해외에서 G7 핏으로 판매됐던 모델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 공통점은 가격이다. 삼성전자 A7 출고가는 49만4000원, A8S도 중국에서 50만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LG전자도 Q9을 출고가 49만4000원에 출시했다.

아울러 두 제품은 중저가 모델 대비 높은 스펙으로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전자는 A7에 브랜드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한 데 이어, A8S에는 인티니티-O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채용했다. LG전자도 Q9에 6.1인치 QHD+ 해상도에 후면 16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가성비’에 힘을 쏟았다.

◆보급형 인기 왜?

중저가폰 고급화는 스마트폰 시장 수요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한다. 소비자들이 플래그십보다는 중저가폰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조사간 경쟁점도 중저가 모

델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경제 불안은 중저가폰 수요를 부추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도 주머니 지퍼를 닫았다는 것. 특히 신흥시장에서 소비 동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도 중저가폰 인기에 힘을 보탤다.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등이 장본인이다. 삼성이나 LG 플래그십 스펙을 따라가면서도, 가격은 50만원 이하로 떨어뜨렸다.

◆시장 악순환 고리 되나

소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성능 휴대전화는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상품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저가폰 인기가 결국 스마트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치킨게임’ 발발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대까지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14만대 수준에 멈춰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크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조사들이 스펙을 올리는 대신 부실한 마감 등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어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후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익이 줄어들면 연구 개발 비용(R&D)도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래그십 중요도가 낮아지면 첨단 기술을 상용화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부품사들은 중저가폰 고급화로 당분간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시장이 정체되면 결국 피해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중저가폰 인기가 스마트폰 시장 악순환을 불러오는 셈이다.

/김재욱 기자 juk@

기업 10곳 중 8곳
“올 최저임금 인상
신규 채용에 부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시간당 8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됐다.

14일 사람인이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채용 부담’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중 77%가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78.6%)이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대기

업(66.7%), 중견기업(62.1%) 보다 10% 이상 높았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가 절반에 가까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동결’(25.8%), ‘야근 및 특근금지’(24.5%), ‘구조조정’(20.5%), ‘계약직 위주 채용’(20.2%)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 자리잡아가는 거점배송... 알바가 가정까지 2차 배달

## Q 르포 |

### '택배대란' 남양주 다산 신도시 그후

'물건너간 실버택배 대신 알바생 거점 배송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간 줄다리기로 지난해 '택배대란'이 일어났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새해로 넘어오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기자가 방문한 다산신도시 내 자연엔롯데캐슬의 후문에 '일상생활 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센터는 거점배송을 위해 아파트와 택배사가 함께 설치한 택배 분류장이다.

'거점택배배송'이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특정 장소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내리면 이를 다시 택배사 직원이나 시간제 근로자가 전동카트를 이용해 개별 가구에 최종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다산신도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당초 이곳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실버택배는 2017년의 경우 2100명 가량이 아파트 단지내 택배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53만원으로 이 가운데 10만~20만원 정도가 정부 지원금이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해법으로 실버택배가 제시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력으로 택배차량을 통제할 것을 두고 국민 세금이 일부 쓰이는 실버택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까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답변

여론 반발로 실버택배 물건너가 입주민·택배사 함께 점점 찾아 시간제 근로자가 전동카트 배송



▲ 11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자연엔롯데캐슬 후문에 일상생활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다.

◀ 단지 내 지하에 주차돼 있는 운송용 전기카트. /석대성 수습기자

김장관은 당시 "향후 새로짓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높이로 지어져 '탑차' 형태인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에는 '거점택배'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실버택배 도입안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택배사 대리점 대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배송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일이 다소 수월해진 느낌"이라면서 "조그만 손수레로 몇 번씩 왔다갔다 했던 것을 전동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도 적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에선 거점택배가 운송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인력 추가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다.

단지 내 경비원 A씨는 "하교 시간에 택배차가 왔다 갔다하면 신경이 곤두섰는데 그런 부담이 지금은 확실히 줄었다"면서 "소음 공해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까지 시범사업을 끝낸 택배사는 입주민측과 최종협약서를 체결하고 설 연휴 전부터 거점배송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계약은 택배사와 아파트간은 2년, 택배사와 대리점 간엔 1년 단위로 알려졌다. 또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택배사가 다른 택배사 배송을 수탁할 예정이다.

택배사 관계자는 "일부에선 설 명절 택배대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명절 전에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에서 만난 한 입주자는 "(그 사건 후)항상 아이에게 차 조심하라고 당부한다"며 "(안전 문제에 있어) 굉장히 예민했는데 좋은 해결책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울산에서 제주도 더 쉽게 간다”

에어부산, 울산-제주노선 대폭 증편

에어부산이 울산발 국내 노선을 대폭 증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현재 매일 왕복 2회 운항하는 울산-제주 노선을 다음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최대 매일 왕복 5회로 2배 이상 증편하여 운항한다. 또한 울산-김포 노선도 탑승객이 평소보다 많은 금요일, 일요일에 맞춰 주 3회 증편한다.

지난해 에어부산의 울산-제주 노선 평균 탑승률은 91.1%로 거의 만석에 가깝게 운항하였다. 이번 증편을 통해 울산-제주 노선의 만석적인 좌석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증편 항공편의 출발



시간대가 각각 아침, 낮, 오후로 배정되어 스케줄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은 이번 울산 증편을 기념해 특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울산~제주, 울산~김포 노선 모두 편도 총액 기준 1만 6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탑승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며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964@

## ‘스카이’의 부활...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

국내 피쳐폰의 전설로 꼽히는 스카이(SKY)가 부활한다.

착한텔레콤은 팬택과의 포괄적인 협력 계약을 통해 스카이 브랜드의 휴대폰과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사의 협력 범위는 스카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비롯해 스카이스터비스센터 인수와 기존 팬택 인력의 승계가 포함된다.

착한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중 스카이스마트폰 1종과 폴더폰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팬택 연구소 출신의 개발진과 협업체 공동 개발 및 인증 과정을 거쳐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확보한다. 제품 생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양산된다. 이를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인 '스카이 폴더폰'. /착한텔레콤

위해 연구인력을 해외 현지 공장으로 파견해 생산 공정을 점검해왔다. 스카이 브랜드의 품질을 유지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스카이 휴대폰의 유통은 최근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참이슬·처음처럼’ 전국 점유율 68% 난공불락

### 지역소주, 수도권 도전은 고달프다

참이슬, 영·호남·제주 등 지역공략 지역소주 매출·영업익 지속적 감소

무학과 보해양조 등 지역 소주 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역소주의 수도권 공략이 여의치않고, 참이슬과 처음처럼 등 수도권 소주가 영·호남 및 제주 등 지역 공략을 가속화하면서 지역소주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호남과 제주지역의 젊은층들이 수도권 소주를 선호하고 수도권 소주업체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소주의 실적 이 악화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전국 소주 시장에서 50%대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이 약 18%로 2위를 기록 중이다.

지역소주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136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광주와 전남에 기반한 보해양조의 매출이 377억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제주도 향토기업인 한라산소주는 한때 90%이상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현재 60% 대로 떨어졌다. 하이트진로와 제주소주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의 물량 공세때문에 점유율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최대



참이슬(왼쪽부터), 처음처럼, 좋은데이, 앞새주, 한라산

/각사

시장인 수도권에서 1,2위를 유지하면서 최근 지방 시장을 공략한 신제품 출시와 영업 강화로 지역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소주업계 1위인 참이슬의 영·호남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2017년 대비 10%p 이상 증가했으며, 부산 역시 점유율이 소폭 증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참이슬 16.9'를 출시한 후 영남지역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3년 만에 약 3억병 이상이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경남 마산공장에서 '참이슬'을 생산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부산지역에 테스크포스(TF)을 만들어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도 활발히 펼쳤다.

호남권에서도 참이슬의 인기는 높다. 호남권에서 90%대 점유율을 유지하던 보해양조가 무리한 신제품 개발 및 수도권 공략 실패 등으로 부진하자 하이트진로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참이슬' 점유율을

약 50% 끌어올리며 1위에 올랐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광주, 대전, 천안 등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

결국 지역소주 회사들은 다양한 활로를 모색 중이다. 무학은 판매 지역 확대를 목표로, 충북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보해양조는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플랫폼 T-mall(티몰)에 복분자주와 매취순을 선보이며 해외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라산소주는 수도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신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량을 기존 15만병에서 25만병으로 늘렸다.

한 지방소주업체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대기업회사들이 유통망과 영업력으로 밀면서 지역 주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 소주 회사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려해도 도매상 확보나 물류비 등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그린벨트 대거 풀린다~ 자 이제! 내 땅도 천지가개벽 좀 해보자!

2020 광역도시계획 →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면적 85.5%가 그린벨트인 의왕시, 백운호수 인접 최대수혜 단연 화제



## 백운밸리 신도시 도로 접 토지매각!



현장 팩트가 답이다! 지금 당장 직접 확인하시면 답이 보이는 돈되는 땅!  
신도시 1차 설계시, 도시용지 범위 포함 임야로 추가 그린벨트 해제시 지가 상승

- 신도시 1차 설계시, '단독주택 용지'에 포함되었던 지역임
- 신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8~10m 도로를 접하고 있음
- 경사도가 없는 평지의 토지로 산림 훼손이 심한 낮은 임야임
- 도로, 상하수, 통신 등 기반시설이 매각지 앞까지 들어와 있음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신도시 개발 호재
- 청계IC~ 강남 15분(과천~봉담 고속도로)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청계역(2019년 착공예정)
- 백운로·의일로 4~6차선 확정~제2경인고속(북청계연결)
- 백운~의왕 오전동 4차선 신설도로(2020년 개통예정)
- 2020년중 롯데복합쇼핑몰(10만m²)입점 확정

문의 **031)462-9090**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 LGU+, 1만5121시간 봉사활동... 나눔 온기 높여

# ‘乙’들의 눈물

## 지난해 임직원 봉사 인원 3881명 기록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한 해 임직원 봉사 시간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만5121시간, 참여인원 연간 누적 3881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조직문화 핵심활동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를 포함해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팀 혹은 담당 단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일봉사 ‘1팀·1담당 1나눔’ ▲사전 정보 없이 떠나는 미스터리 봉사 ‘U+나눔 버스’ ▲목소리 기부를 통한 시각장애인 책 읽기 봉사 ‘보네이션(Vonation)’ ▲장애아정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꿈을 지원하는 ‘두드림 U+요술통장’ 등 사내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사내 봉사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이 많은 지방 근무 임직원을 위한 봉사



지난해 6월 ‘U+재능봉사단’이 청파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자율적으로 봉사를 계획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로 지방 근무 임직원 봉사활동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8시간의 봉사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 유급휴가제도’, 나눔 활동 참여에 마일리지 부여해 일정 마일리지 도달 시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선물하는 ‘나눔마일리지’ 등도 도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기지 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을 중의 읍이다. 어쩌면 그조차 되지 않는 처지일지도 모른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다.

최근 콜센터 업체의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콜센터 업체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가는데, 상담원들의 처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는 지난 2006년 581개에서 2017년 913개로 늘었다. 종사자는 3만2662명에서 7만5430명으로 증가했다. 10여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사람은 늘었는데 급여는 10년 전 그대로다. 수화기 너머의 폭언을 견디고, 생리현상을 참아가며 받는 돈이 고작 10여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생면부지 고객의 ‘갑질’에 냉가슴을 앓아도, 곧바로 다음 콜을 받아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고용불안 역시 상담원들을 옥죄는 고충 중 하나다. 모 업체의 현직 상담원은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언제든 잘릴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고 표현했다.

실제,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 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7년 11월 출범 이래 지난해 말까지 신원이 확인된 콜센터 관련 제보는 80건 정도다. 이 가운데 괴롭힘·폭언이 25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불안 17건(21.2%), 임금 14건(17.5%)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금껏 콜센터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도출된 적은 없었다. 누군가는 ‘해묵은 이슈’로 여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언제나 현재진행형인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참담하다. 여전히 상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상담원들은 여전히 갑질에 신음하고 있다. 심지어 퇴보하는 모양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사회에 진입하면서 상담원들은 찰나의 자유조차 빼앗기고 있다. 감정노동자는 ‘갑질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촉구되는 바다.

/min0812@metroseoul.co.kr

# 대림산업, 3세 경영... 이해욱 회장 승진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사진)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창업주인 고(故) 이준용 명예회장의 손자다. 이로써 대림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체제가 시작했다.

이 회장은 14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회장님과 선배님들이 이뤘던 대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절대경쟁력을 갖추 때까지”라는 취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1995년 대림에 입사해 2010년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I



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석유화학사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서 한편, 석유화학사업 빅딜

및 해외 메이저 석유화학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키며 그룹 전체의 재무위기를 넘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신평면 개발 및 사업방식 개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분야에 걸친 원가혁신을 도모해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대림은 10년 동안 연구개발을 거쳐 2010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반응성 폴리부텐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은 영업이익률 제고로 이어졌으며, 지난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석유화학의 본고장인 미국에 석유화학 제조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최근엔 건설업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에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채신화 기자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10일) http://www.saju4000.com. A grid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daily fortunes, such as '48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and '5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관한 시간 낭비.' with icons for each sign.



# 김상회의四季

## 운세를 최대한 누리려면

“재물이 트였을 때 최대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매장 3곳을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어느 사장님의 말이다. 작년 상담을 왔을 때 앞으로 5년 정도 재물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일러줬다. 말하자면 개운의 시기가 왔던 것이다. 그 전에도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후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 운세가 따라줄 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돈 버는 재미가 생기면서는 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운이 열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섰다.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는 게 너무 선명히 보였기 때문이다. 저렇게 돈, 일 욕심을 내다 탈락 몸이라도 고장 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때는 몸은 몸대로 상할 것이고 운이 주는 이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운세는 고사하고 손해만 가득할 게 뻔했다. 사실 직장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자기를 시간에 쫓기는 ‘타임푸어’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무엇을 하든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게 몰아쳐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말한다. 더구나 그런 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돈을 쫓다 ‘인생푸어’에 ‘건강푸어’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은 결국 과로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문병을 가보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달 정도 입원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운세가 열리면 무조건 쫓아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운세를 다 누리질 못할 때가 많다. 여러 사람을 보며 얻은 경험담을 말해주니 거칠어진 얼굴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한다. 좋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한다. 운세를 활용할 때도 욕심보다는 비움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A 9x9 Sudoku puzzle grid with some numbers pre-filled. The numbers are: Row 1: [1, 5]; Row 2: [4, 2, 3]; Row 3: [3, 2]; Row 4: [5, 3, 2, 1]; Row 5: [3, 8, 4]; Row 6: [6, 7, 5, 8]; Row 7: [4, 3]; Row 8: [5, 6, 7]; Row 9: [2, 8].

스도쿠 정답 (Sudoku Solution): Row 1: [5, 8, 2, 9, 3]; Row 2: [9, 2, 7, 8]; Row 3: [3, 4, 2, 1]; Row 4: [1, 8, 9]; Row 5: [3, 4, 7]; Row 6: [2, 5, 3, 1]; Row 7: [1, 9, 8, 5, 6, 4, 2, 7, 3]; Row 8: [5, 8, 9, 2, 6, 1, 4, 7, 3]; Row 9: [6, 7, 5, 8, 9, 4, 2, 1,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세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24호.

조직개편 나선 두 공기업

# 정보·연구 2원화... 일자리 앞장

## 고용정보원

### 일자리 등 국정과제 수행 주력 기획정보화·연구사업 2체제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고용정보원과 안전보건공단이 일자리 국정과제 수행과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4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기존 4실 2센터를 2본부 5실 3센터로 재편했다. 국정과제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해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정보화본부와 연구 부서를 관리하는 연구사업본부 2체제로 나섰다. 기획정보화본부에는 지난해 구축한 '일자리포털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워크넷·고용보험·직업훈련포털 등의 전산망을 총괄 기획·관리하는 고용정보서비스실이 편성됐다. 연구사업본부에는 청년고용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분석, 모니터링, 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가 편제됐다. 고용정보서비스실은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관련 팀 등이 옮겨와, 고용정보를 한 데 모아 국민에

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화 관련 두 실 단위 조직은 고용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분석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부서 일자리 플랫폼실과 제반 사업 및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보화운영실로 거듭난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개편이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밝혔다.

# 빅데이터 기반... 산재사망 절반 감축

## 안전보건공단

###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등 개편 견제·협력 통해 재해예방 효과 ↑

안전보건공단은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선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해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형을 마련한다. 또한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본부 조직은 사업기획과 집행부서를 분리,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일선 조직은 지역거점조직으로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체제를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와 11개 지사체제로 개편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

### 단열보완·창호교체 등 비용 지원

정부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원에서 카드사 대출 최소 5만원으로 낮춘다. 또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차 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 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또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 준다. 사업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을 고려해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 이차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

# 코레일·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원년 정치인 장관들의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표 공공기관장도 줄줄이 교체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최대 4개 공공기관장이 새 얼굴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곳은 현재 사장 공모에 착수했으며 1곳은 이달 중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빠른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다. 다음달 정일영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후보자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임추위는 최근 5배수로 후보자를 압축

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운위는 이달중 최종 후보자 1~2명을 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후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입 사장이 선임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신입 사장 후보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 등 교통업무를 총괄한 차관급 관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코레일은 잇단 철도 사고로 지난해 12월 오영식 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신입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사장 인선에 착수했다. 이달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 공운위 회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신입 사장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마감했다. JDC 이사장 자리는 이광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7월 27일 임기를 1년 4개월 앞두고 사퇴함에 따라 현재까지 1년 5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 출신과 국토부 공무원 출신 등 총 4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2배수 정도로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인선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가 일단 3월 말로 끝남에 따라 퇴임쪽으로 거취가 확정될 경우 늦어도 이달 말에는 사장 공모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홈쇼핑, '영업·방송' 경력직 인재 채용

홈쇼핑이 경력직 인재 채용에 나섰다. 홈쇼핑은 오는 23일까지 2019년 경력직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영업(TV MD) ▲방송(CG, 무대디자인) ▲지원(e글로벌, 마케팅, 법무, 물류, HRD) ▲IT(정보기획, 정보운영, 정보보안) 부문이다. 분야별로 1년에서 8년 이상 인재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23일까지 홈쇼핑 채용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지원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이

다. 다만 CG, 무대디자인 직무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내 발표하며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모집분야와 경력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채용 안내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등록장애인 등은 관련법에 의해 우대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 2400명에 장학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 인원에 대해 4월부

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월 27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중진공 신임 부이사장에 김현태 기획본부장 임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김현태 기획본부장을 신임 부이사장(사진)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태 부이사장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경영학 석사, 인하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87년 중진공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기금관리실장, 성과관리실장,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기획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해 왔다. /김승호 기자

# 주금공 최고 사회적가치 채권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디 에셋'으로부터 '2018년 아시아 최고 사회적가치 채권(Best Social Bond)' 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디 에셋은 주금공이 지난해 10월 유럽에서 5억유로 규모, 5년 만기의 아시아 최초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이중상환 청구권부채권)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김희주 기자 hj9@

**말레이시아 골프 9일 145만원**

쿠알라 인근 명문 골프장 2색 골프, 5성급 호텔  
몬테레즈 CC+ 술탄(KG사스) CC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4성급 UPM 9일 13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겐팅아와나 6일 129만원 (1/26 출발)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몬테레즈 9일 139만원 (5성급 호텔)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겐팅 아와나 9일 159만원(해발 1100m)  
불포함:미팅샌딩비 50\$



**‘치앙마이’보다 시원한 ‘치앙라이’ 5/6일 149만원~**

대한항공 직항, 목출발 5일, 일출발 6일

1월 10일 / 17일 (목요일) 출발  
1월 6일 / 13일 / 20일 (일요일) 출발 164만원  
불포함사항:캐디팁, 캐디피, 카트비, 공항-리조트송영비



**치앙마이 3박 5일 126만원~**  
불포함:중식, 캐디팁, 기사&가이드경비



**설 연휴 골프 한정 특가**

- 2019.2/2 출발  
겐팅아와나 5일 12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2019.2/1 출발  
겐팅아와나 6일 14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글렌메리 5일 13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 2019.2/2 출발  
대만 가오슝 3박 4일 159만원  
불포함:개인비용 및 매너팁, 가이드&기사팁(50\$)
- 2019.2/3 출발  
중국 해구 미션힐 6일 219만원  
불포함:캐디팁(100위엔/18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호바루**

- 10대명문골프장  
쿠알라글렌메리 6일 139만원 (해발 1100m 5성급 호텔)  
1월 23일 출발  
불포함:미팅샌딩비
- 겐팅아와나 9일 159만원 / 6일 135만원 / 15일 235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 몬테레즈 9일 139만원 (실속가성비)  
1월 07일 출발  
불포함:미팅샌딩비
- 조호바루 폰데로사 5일 69만원 / 3색 골프 11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필리핀 클락/마닐라/세부**

- 마닐라 바탕가스 명문 2색 4일 799,000원  
사잇포인트C.C / 말라라얏C.C, 목요일 / 금요일 출발  
불포함사항:클럽중식 및 그늘집비용, 캐디팁, 카트비, 미팅/샌딩차량비
- 클락 베버리 3박 5일 769,000원  
불포함사항:클럽중식 및 그늘집비용, 캐디팁, 카트비, 미팅/샌딩차량비, 클럽공항세
- 세부 인터내셔널 3박 5일 700,000원  
불포함사항:캐디/카트, 공항왕복(미팅/샌딩차량비용), 현지공항세

**태국 방콕 / 파타야**

- 방콕 2색 골프 3박 5일 110만원  
아유타야+노던라잇  
불포함사항: 캐디피, 캐디팁, 중식
- 파타야 3색 골프 3박 5일 109만원  
시암 / 람차방 / 피닉스 CC  
불포함사항: 캐디피, 캐디팁, 중식

**라오스**

- 부영CC 7일 139만원  
불포함사항:전동카트+캐디팁, 캐디팁, 공항-골프장 왕복 교통비 및 직원 봉사료
- 덴사반CC 9일 135만원 (5성급 호텔/식사)  
불포함사항:카트비+캐디팁+캐디팁, 미팅샌딩비
- 3색 골프 5일 99만원 부영CC/롬비엔CC/라오CC/레이크CC  
불포함사항: 개인경비, 매너팁, 캐디팁, 클럽중식

**일본 고베 골프 특가 3일 699,000원**  
12/13일 출발, 불포함: 중식

- 오키나와 3색 골프 4일 109만원  
오키나와CC / 오션캐슬CC / 슈레이CC  
불포함사항: 캐디피,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 미야자키 니치난 4일 54홀 949,000원  
토요일 출발  
불포함사항: 캐디피,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 아와지스프링스 3일 54홀 699,000원  
불포함사항: 캐디피,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장기골프특가**

- 태국**
- 카오야이시티 1일 8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아티타야 1일 10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베스트오션 1일 13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다이너스티 1일 12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라차캄 1일 14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카오차녹 1일 95,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필리핀**
- 메르세데스 1일 70,000원  
포함: 그린피18홀, 카트, 캐디, 숙박(2인1실), 조중석식
- 인터내셔널 1일 70,000원  
포함: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 스플랜디도 1일 110,000원  
포함: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 갈릴라얏 1일 90,000원  
포함: 숙박(2인1실), 식사(한식), 18홀 그린피, 차량, 기사/가이드

**베트남 나트랑/다낭/호치민/하노이**

- 나트랑 빈펄+다이아몬드CC 5일 129만원  
포함사항: 왕복 항공료&TAX, 리조트 숙박(2인1실), 식사(조/석식), 골프 그린피, 캐디(전동카트, 여행자보험)
- 다낭 3색 골프 5일 149만원  
포함사항: 숙박비, 조식+석식, 특샤, 시푸드 정식, 분짜 정식, OK 뷔페, 가이드, 그린피, 캐디(카트, 차량, 호이안부터 다낭시, 레안공 전신사자 190분, 전월정 1일 1명 시범만 승수, 열차티켓 제공)
- 호치민 골프 5일 109만원~  
포함사항: 항공 및 택시, 호텔 차량, 일일상포함된 식사 가이드, 골프-편54홀 그린피+캐디
- 하노이 스카이라이프+롬비엔 C.C 149만원  
포함사항: 항공 및 택시, 스카이라이프CC, 롬비엔CC-2색 그린피(일-금:27홀/토, 일:18홀)/전월정-숙박(조식)

**대만 가오슝/타이페이**

- 가오슝 VIP 3박4일 125만원  
불포함사항: 전동카+캐디피+캐디팁, 클럽 중식, 기사&가이드팁
- [청주]타이페이(FE) VIP 3박 4일 850,000원  
불포함사항: 전동카+캐디피+캐디팁, 클럽 중식, 기사&가이드팁

**괌/사이판**

- 괌 스타츠 3박5일 145만원  
불포함사항: 캐디피+캐디팁, 중석식, 기사&가이드팁
-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3박 5일 149만원  
불포함사항: 캐디피+캐디팁, 중석식, 기사&가이드팁

**중국 광저우/하이난 평균 23도**

- 광저우 남사 5일 119만원 / 실버마운틴 9일 149만원  
불포함사항: 픽업비, 캐디팁, 비자비
- 하이난 미량만 5일 109만원~ / 블루오션 6일 849,000원  
불포함사항: 미팅샌딩, 캐디팁,

**IL Tour 02-541-4242**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02-542-9822 블로그: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 아이디: golfcondo



**한국/중국/일본/러시아 CRUISE**  
2019년 5월 호도 여행 예약  
6일 1,880,000원~



- 4/26 인천 출항 **한중일 전세 크루즈 6일**  
인천항 상해 후쿠오카 부산항
- 5/1 부산 출항, 5/2 속초 출항 **한러일 전세 크루즈 5/6일**  
부산항 속초항 블라디보스톡 사카이 미나토 속초항
- 5/6 속초 출항 **한러일 전세 크루즈 6일**  
속초항 블라디보스톡 오타루 아오모리 부산항

**코스타 세레나 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롯데관광 크루즈 판매점 02-541-424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02-542-9822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 아이디: golfcondo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에 필수 건강 파트너!  
**사우나는 집에서...**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사우나, 국내 출시!

2-3인용

5-6인용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원적외선 사우나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자동온도조절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 인체공학적인 설계

24시간 상담  
농막, 캠핑하우스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해 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참여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연철뉴스

### “부패·갑질·법률위반 등 신고 하세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나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ey@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1년 매출 1130억

전년 863억 비 31% 늘어 역대 최대 경기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2018년 누적 매출액이 1,13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50억 원 대비 22.6배, 전년도인 2017년 매출액 863억 원 보다는 31%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매출액 증가 원인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와 직매장 확산 및 지원사업 확대를 꼽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직매장 건립비용과 연중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확충을 집중 지원해 왔다.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포장재 제작비용, 소비자 교류행사 등 6개 사업



경기도내 로컬푸드 직매장내 전경. /경기도

에 57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도는 2018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개 시군에 44개로 확대했다. 현재 참여 농가는 9,803농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참여 농가당 매출액은 1,153만 원으로, 농업인 중 특히 중·소농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김승열 기자

### 경기 용인, 경안천 ‘수해예방’ 시민품으로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한 지역주민들의 습터로 재탄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착공 6년 만에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 6.4km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공사 착수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로 492억 원이 투입됐으며,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경안천 주변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약 3,300여동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한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을 포함, 경

안천 수계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던 하천 초부교(L=116m)와 독점교(L=97m)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해 도민의 통행 편의 증진에도 힘썼다. 아울러, 제방 관리용 도로와 총 970㎡ 규모의 수변공원 3개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윤학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 및 친수 공간 제공”이라며 “도민의 하천 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올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최대 4500만원 '10년간 무이자' 신혼부부엔 최대 6500만원까지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500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총 8572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받았다. 시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도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자녀

유무를 우선순위로 조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제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소유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28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존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지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

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입주자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 탄탄해진다

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정책 기초보장제도 수급문턱 낮춰 '긴급복지' 예산 2배 확대 편성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렸다.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폭염 때 2434가구에 8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때 59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했다. 예년과 비교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과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은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했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어르신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는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7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20개소를 운영한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 등에 각 1곳씩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왔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에 확대 제공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시내 제설함 1만여개 점검나서

부족 자체 보충, 청소 마쳐 서울시는 시내에 설치된 제설함 1만 2679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이면도로 고갯길, 고지대 등 제설 취약지역 1만2330곳에 설치된 제설함에 염화칼슘, 소금, 삽 등을 보관하고 있다. 보행자가 많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변 보도 349곳엔 너가래와 빗자루 등을 제공하는 제설도구함이 비치돼 있다. 시는 지난해 제설함 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제설자재를 보충했다. 청소도 마쳤다. 향후 제설함 관리를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설함이 비어있거나 제설도구 대신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서울시 응답소,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제설함 모습. /서울시

신고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갯길 등의 제설취약지역에선 제설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시점검을 통해 제설함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소상공인 안전성검사 지원 서울시, 유해성 유무 확인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구두 등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와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시는 소상공인이 경쟁력 갖춘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가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왔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 주기가 짧다. 시는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르포] 미국에서 만난 한국기업 삼성전자·기아차·현대차 04·05



Life

[유통] 이마트, 명절선물은 스토리텔링으로



# 교복에 담긴 꿈과 재능, 스마트하게 키워나가요!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스마트학생복

저소득층 학생들 위해 교복 지원  
깨끼꿈 연극학교 무대의상 협찬  
몽골·방글라데시 등 학생복 기증

공모전 등 가족 위한 캠페인 전개  
끼·재능 가진 어린이 모델 발굴도

학생복 브랜드 스마트학생복은 바른 교복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겠다는 각오를 바탕으로 학생복이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캠페인 활동, 선발대회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 ◆국내외 무상교복 지원

스마트학생복은 국내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울릉도의 중학교에 학생복을 기증했다. 또한, 연평도, 충남 천안부성중학교 등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복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희망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지리산고등학교와 '사랑의 교복 지원' MOU를 체결하며 2018학년도 지리산고등학교 남·녀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및 체육복, 생활복 등을 무상 지원했다.

스마트학생복과 MOU를 체결한 지리산고등학교는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업료, 식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마트학생복은 2004년 개교한 지리산고등학교와 개교 첫해부터 인연을 맺고 14년간 지속적으로 교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지원하는 학교밖 교육활동 '꿈의 학교' 중 하나인 '깨끼꿈 연극학교'에서 진행되는 연극 '안단테'에 활용될 무대의상인 교복을 지원했다.

스마트학생복은 청소년의 재능을 발굴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꿈의 학교 운영 취지에 공감하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로하고자 기획한 연극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극중 교복 의상을 지원했다. 연극의 주 무대가 학교인 만큼, 학생 배우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트레치 소재로 활동성 및 안전성을 강화한 남녀 하복상·하의 총 20벌을 지원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생들에게도 활발하게 학생복을 지원했다. 스마트학생복은 2000년 4월 몽골에 30억원 규모의 학생복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네팔, 방글라데시에 약 8만 3000여 벌의 학생복을 기증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일부 지역에 교복을 지원하며 국경을 초월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017년 11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현장.



몽골 울란바토르 학교에 10억원 상당의 교복을 전달했다.



제1회 리틀스마트 원복 모델 선발대회.



2017년 지리산고와 '사랑의 교복 지원' MOU 체결.



깨끼꿈 연극학교 연극 '안단테' 교복 협찬.

/스마트학생복

'사랑의 열매'와 해외 교복 지원사업 관련 전달식을 체결하고 재킷, 블라우스, 바지, 스커트 등 약 10억원 상당의 교복 3만 4000여 벌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는 사랑의 열매 해외 조사 이후 함께하는 사랑밭 주관 하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성긴 하이르항구 지역의 3개 학교에 10억 상당의 학생복을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과 빈민가인 게르촌이 많은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의 학교인 몽골의 9번째 학교, 67번째 학교, 105번째 학교에 약 10억원 상당의 셔츠 및 블라우스 2벌, 하의, 재킷으로 구성된 교복 세트가 전달돼 총 8000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됐다.

#### ◆가족 친화 캠페인 전개

스마트학생복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족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간 가족 친화 및 화합,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스마트학생복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학생복은 '가족애 사진 공모전', '가족애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을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으며, 100명의 중·고등학생 홍보 봉사단으로 이루어진 '수요일애 봉사단'을 선발해 가족 사랑의 날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마트학생복은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송 '패밀리'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학생복 전속 모델인 그룹 방탄소년단, 여자친구가 10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가족사랑의 날이 가진 의미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랫말과 흥미로운 안무로 이루어진 대규모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끼와 재능 발굴...청소년 꿈 지원

스마트학생복의 제작 노하우를 그대로 도입한 유치원복 브랜드 '리틀스마트'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도 눈길을 끈다. 리틀스마트는 지난 2017년 12월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진 어린이 모델을 발굴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제1회 리틀스마트 원복 모델 선발대

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의 심사 및 최종 결선을 통해 선발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체육복 등 부상과 함께 브랜드 전속 모델 활동, FNC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교육 프로그램 참가, 어린이 잡지 표지 모델 등의 특전이 제공됐으며 총 15명의 수상자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수여됐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스마트나라 리틀빌리지'라는 콘셉트 아래 대회를 구성해 본선 대회 외에도 '원복 색칠하기 Zone', '포토 Zone', '어린이 마술공연' 등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 공간을 운영했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스마트학생복은 대한민국 대표 학생복 브랜드로서 청소년과 아동의 꿈을 돕는 다양한 활동은 물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교복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한두 번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아동부터 청소년,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